



코리아나화장품 포장 디자인

Coreana Package Design

김 윤 오 / 코리아나 홍보팀

1. 실용적 패키지 시도

코리아나화장품(대표이사 박찬원)은 오래전부터 코리아나만의 제품 철학과 실용적인 사용을 위한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에 힘써왔다.

함유 성분과 용기의 디자인, 색상 등을 통해 자연주의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환경 친화적인 용기, 포장 재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기호에 맞게 구성하면서 문화적인 접근을 겸비하고 있다.

2. 환경 친화적인 발상

엔시아 메이크업 전 제품에 제품 설명서를 내장하는 대신 포장지 내부에 제품의 특징, 성분, 사용법을 표기해 종이 사용량을 감소시켰다.

제품 포장지와 사용 설명서는 대부분 제품 구입 후 바로 폐기되는 점을 감안, 제품 포장지 내부에 사용 설명서를 인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포장지에 절취선을 넣어 포장을 뜯어 사용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나는 종이와 인쇄비에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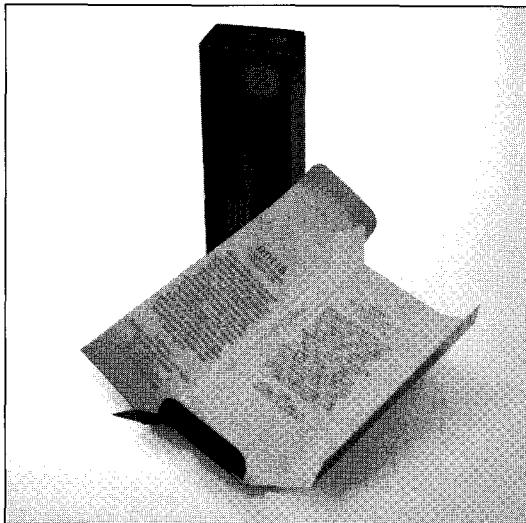
약 15%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여기에 조립공정과 인건비 등까지 따지면 적잖은 원가 감축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발상을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PVC 포장재의 사용을 자제하고 포장 공정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보호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3. 문화적 접근

오천년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인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한방화장품의 제품용기와 조화되도록 포장 용기도 그 빛과 그 생각을 담아 함께 제작했다.

코리아나화장품이 신사동에 문을 연 복합 여성 문화공간인 space*c가 소장한 청자 소문병, 청자상감 국화문모자합 등 흔히 접하기 어려웠던 청자로 제작된 옛 여인들의 화장 유물 사진을 각 제품의 패키지에 넣어 '우리 문화 사랑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제품포장지에 사용설명서를 접목시킨 앤시아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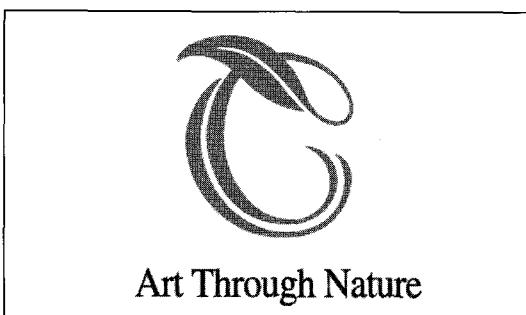


▲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한 한방화장품

이는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내적인 아름다움도 고려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향한 코리아나의 의지가 담겨 있다.

4. 상징화한 자연주의 도안 사용

코리아나 제품 철학인 'Art Through Nature' (자연을 통한 아름다움의 예술 창조)를 잎사귀



▲ 코리아나 자연주의 도안

모양으로 상징화하고, 코리아나 이름인 'C'를 형상화하여, 중첩된 의미를 담은 도안을 만들어 제품 패키지에 사용함으로써 코리아나 정신을 시각화하였다.

5. 다양한 디자인 추구

무수한 글자들로 뒤덮힌 설명서 역할의 아날로그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장식적인 요소와 함께 브랜드의 타깃의 입맛에 맞는 차별화된 도안 사용과 과감한 컬러를 적용하여 화장품 포장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코리아나 화장품은 앞으로 실용적 환경친화적인 패키지 도입으로 국내 화장품산업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ko]